

# 전 세계 한상인 1천명 10월 여수 온다

### 22일부터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국내 기업인 등 5천명 참여...지역 중기 비즈니스 확대 기회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축제인 2019년 제 18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전 세계 60개국 1000여명의 해외 한상과 국내기업인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만큼 지역경제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상(韓商)은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한민족 혈통의 비즈니스 중사자를 일컫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 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중인 한상인들이 국내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무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한상과 지역경제인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한상대회에서는 한상인 리더 CEO포럼, 차세대 경제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영비즈니스 리더포럼 등 한상 네트워크 확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등이 열린다.

또한,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 해외바이어 구매상담회 등 국내 주요 경제행사가 열리며, 전남도는 자체행사와 연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무역 여건에서 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할 예정이다.

전남은 수출 대상국과 수출품목이 한정돼 있어 이번 대회가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정부부처를 단장으로 5개 반 18명의 대회지원 준비단을 구성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램 강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한상과 전남지역 기업인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별·지역별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1사 1청년 운동을 확대한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한상의 국내 청년 채용 확대 등 일자리 관련 행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대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일자리 박람회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

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전국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 등 국내 경제행사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100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설치비를 지원한다"며 "재외동포 기업인과 도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드 갈등 후 첫 중국 입항하는 해군 함정 한국 해군 순양훈련전단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이 14일 오전 중국 상하이 우쑹(吳淞) 인민해방군 해군항 부두에 들어오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중국에 입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한국인 평균 연령 42세 돌파

### 0~9세, 50대의 절반도 안돼 2018년 총 인구 5천182만명



2018년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이며 통계 공표 이래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42세를 넘어섰다. 0~9세 인구는 5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총인구는 2017년보다 4만7515명, 0.09% 늘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0.1% 이하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오른 뒤 매년 하락 추세에 있었고 2017년 0.16%로 당시 최저치를 찍은 다음 이번에 기록을 경신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40대 이하 연령대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했고 50대 이상은 늘었다. 특히 0~9세 인구는 50대의 49.94%에 그쳐 처음으로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0~9세 13만2000명, 10~19세 17만3272명, 30~39세 9만8506명, 40~49세 21만4165명 각각 감소했고 20~29세 1만3006명 증가해 40대 이하 인구는

60만5073명 감소했다.

50대 이상은 '100세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 구간에서 인구 증가세를 보여 총 65만2588명 늘어났다. 100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만7850명에서 2018년 1만8783명으로 933명 많아졌다.

2018년만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3201만6918명, 50대 이상은 1980만9141명이었었다. 50대가 861만5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48만8587명, 60대 594만9639명, 10대 513만1153명, 0~9세 430만3062명, 70대 349만7936명, 80대 151만6992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 양승태 사흘만에 재소환...통진당 재판 개입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7개월간 진행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현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임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재에 파견간 최소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 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7명 "기초의원 해외연수 금지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4.4%포인트),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질문에 70.4%가 '찬성', 26.3%가 '반대' 입장을 각각 나타냈다.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찬성 76.6% vs 반대 21.5%), 대전·충청·세종(74.9% vs

23.7%), 경기·인천(71.4% vs 25.5%), 20대(81.3% vs 13.1%), 30대(72.8% vs 24.4%), 50대(71.7% vs 25.2%), 진보층(72.5% vs 25.5%), 바른미래당 지지층(74.5% vs 21.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4% vs 26.9%) 등에서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았다. 서울(69.3% vs 23.7%), 광주·전라(67.8% vs 28.8%), 대구·경북(67.3% vs 30.0%), 40대(66.3% vs 29.6%), 60대 이상(63.6% vs 34.5%), 자유한국당 지지층(68.1% vs 29.7%), 정의당 지지층(68.1% vs 20.6%)에서도 찬성이 60% 이상이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운영 부동산거래상담소 이용자 급증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중인 부동산거래상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14년 운영에 들어가 2018년 말까지 부동산거래상담소를 이용한 시민은 모두 289명이다. 첫 해인 2014년 18건에 불과했던 이용자 수는 2018년 77건으로 급증했다. 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부동산거래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맞춤형 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상담소를 방문해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은 물론, 부동산 법률,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 시 대처방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 말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많았던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이나 불이의 사례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상담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답독 섬·적임야**  
 바로합니다. 010-6834-7400  
 ※ 전남, 북지역/지분환영, 1억원 이하 ※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부동산 매매**  
 ● 남악 신도시 ●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 조은일부동산**  
 ☎ 010-3111-50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골·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반도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5천
- 서구 쌍촌동 운전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리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교환가능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회정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충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화순 능주면 면소재지 대지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매도 1억2500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인읍 1213㎡ 건평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